

# 태국 다녀온 일가족 '셀프 격리' 사연

### 주변 지인들 "집에서 쉬어라" 권유에 부담 "죄인 된 심정"...혹시나 해 외부활동 자제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체 격리중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태국 여행을 다녀온 일부 지역민들도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A씨(49·여)는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가기 전에도 부담이 있었

지만 태국에서도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어 내심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태국의 대형 쇼핑몰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고 입구에서 관광객들에게 일일이 손 세정제를 뿌려주기도 했다.

또 공항을 비롯해 여행 기간 방문했던 주요 관광지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A씨는 여행 마지막날 16번 확

진자가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거주한 지역과는 별 다른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 큰 부담없이 귀국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집에 도착한 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지인들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쉬라"고 권유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는 추가 확진자 소식에 A씨와 가족들의 심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A씨의 가족들은 여행 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에 격리생활을 자처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 격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

이다.

마트에서 시장보기는 친척을 통해 주문해 집으로 배달시켜 받고 있고, 직장도 당분간은 쉬기로 했다.

학생인 아이들도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종일 집에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TV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다.

A씨는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에 주변에서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덧붙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2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의 조리원 정원 감축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광주교육청 조리원 정원 감축 규탄"

### 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의 조리원 정원 감축에 반발하며 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12일 시교육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은 정교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문기위원(노무사), 공익위원(시의원),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05명이던 급식보조 인력 정원을 2019년 1232명, 2020년 1256명으로 늘려 총 51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서 노조와 한디 상의도 없이 올해 조리원 정원을 1211명으로 줄였다"며 "이는 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날부터 시교육청 3층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과를 촉구하면서 농성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리원 수를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8년 이뤄진 합의에서 학생 수 감소를 감안했는지 노조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인호 기자

## '코로나' 비상근무? 재판 중인 불출석 광주시 공무원에 과태료 500만원

공무원 승진과 공사수주 편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근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서 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신문이 있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근무를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연락도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광지역아동센터 방역활동 이웅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구 서광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광주시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광주시청 공무원이 '16번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COVID-19) 16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초 공문을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입건, 검

찰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공문이 '맘 카페'에 무단으로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16번 환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다.

이 문서는 4일 낮 12시쯤을 시작으로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뉴스1

## 순천 '병원 탈의실 몰카' 30대 2심서 징역 1년

### 법원 "피해자 수 등 볼 때 죄질 극히 불량"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

명과 합의를 했지만 병원에서 직원들을 촬영했고,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 여성들은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며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NDRP 인쇄전문기업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